

名而動구문의 화용 의미 분석

박 향 란*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주관성과 감정이입

II. 척도 초점과 양보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선진시기 而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허사 중 하나로 그 주요 기능은 두 동사성 성분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連詞)로 볼 수 있다.¹⁾ 그런데 아래와 같이 而앞에 명사성 성분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1) 子產而死, 誰其嗣之? (左傳·襄公三十年)

자산도 죽으면 누가 그것을 이어받겠는가?

(2) 相鼠有體, 人而無禮! (詩經·鄘風·相鼠)

쥐를 봐도 사지가 있는데 사람인데도 예의가 없다.

이런 이른바 名而動구문에 나타나는 而의 통사 및 의미 기능에 대해서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초빙교수.

1) ‘子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공자는 온화하면서도 엄하고 위엄이 있지만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다), ‘子欲善而民善矣’(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도 선해진다)(論語·述而)와 같은 구문으로 병렬, 전환, 목적, 인과, 조건, 양보, 점층 등의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난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초기 훈고학자들은 而를 가설을 의미하는 접속사 如, 若과 통용된다고 여겨 (1)을 ‘자산이 죽으면’으로 풀이하였지만 (2)처럼 가설을 나타내지 않거나 而앞에 使, 若과 같은 다른 가설의미의 접속사가 출현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²⁾ 이후에도 가설, 조건, 대비, 전환 등의 문맥에 나타나는 접속사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하였다.³⁾ 두 동사성 성분을 연결하는 而와 동일하며 앞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었다거나 판단문의 서술어로 간주하였다.⁴⁾ 그러나 (1)처럼 而앞에 인명이 나오는 경우 명사가 동사로 활용되었다거나 판단문의 서술어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⁵⁾ 한편으로 강조나 대비를 의미하는 어기조사 혹은 부사로 보기도 한다.⁶⁾ 而가 2인칭대명사 용법으로도 쓰일 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인한 강조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⁷⁾ 혹은

2) 董蓮池(1990), 方有國(2002), 楊榮祥(2008) 참조.

3) 楊伯峻(1981), 劉景農(1994/1998), 何樂士(1999) 참조.

4) 대표적으로 馬建忠(1956)은 名而動구문은 動而動구문과 마찬가지로 두 서술어 구조가 합쳐진 것으로 앞에 명사가 동사로 活用된 것으로 보았다. 후에 薛鳳生(1991)과 楊榮祥(2008)은 名而動구문에서 앞 명사는 원래 판단문의 서술어로 문두에 생략된 다른 화제성 주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名而動구문이 표면적으로는 명사와 동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진술성 구문(兩度陳述)를 이어져 명사성 서술어와 동사성 서술어가 복합동사구문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司武而枯於朝, 難以勝矣.(사무인데도 조정에서 칼찍음을 당하니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左傳·襄公六年)는 ‘彼, 司武, 而枯於朝’와 같이 앞에 화제성 주어(彼)가 생략되어 생성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5) 宋洪民(2009)은 名而動구문 앞에 출현하는 모든 명사를 판단문의 서술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吳春生·馬貝加(2014)역시 판단문의 주어인 사람 혹은 사물뿐만 아니라 존현문에 나타나는 有나 장소 등도 생략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楊萌萌(2018)은 생략 혹은 첨가되는 성분은 문맥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엄밀한 조건이나 방식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안기섭·김은희(2012)는 而는 여러 문맥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강조하는 어기조사라고 주장하였다. 梅廣(2018)은 而는 주어 앞에는 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후 대비를 나타내는 어기부사로 현대 중국어 却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7) 董蓮池(1990), 方有國(2002) 참조. 예컨대 “王曰, 叔氏, 而忘諸乎.(숙씨, 너는 잊었는가?)(左傳·昭公十五年)”에서 而는 앞 명사인 叔氏을 가리키는 이인칭대명사로 나중에 앞 뒤 성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었다. 沈家煊·許立群(2016)

而 앞의 명사성 성분은 화자가 문맥 안팎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강조하는 대조초점으로도 보았다.⁸⁾

이처럼 名而動구문에 출현하는 而의 통사와 의미 기능은 그 생성 과정에 대한 이견과 맞물려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名而動구문이 공시적으로 여러 층위를 갖고 있다고도 분석한다.⁹⁾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하고 而자체의 품사적 성격보다는 名而動구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화용 의미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이때 而앞에 사람 관련 명사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장소,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도 함께 다루어보기로 한다. 또한 기존에 제기된 가정이나 조건, 강조나 반전, 대비, 초점 등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아우를 수 있는 화용 기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¹⁰⁾

II. 척도 초점과 양보

1. 대조초점설

名而動구문에서 명사와 동사는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는 경

은 而는 어음상 是+乃의 합음으로 復指代詞(resumptive word) 즉 앞에 나오는 명사 주어를 재지시하여 강조하면서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았다. 藍英(1990)은 而는 애초에 지시대명사로 중심 명사(주어)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에 쓰였다가 훗날 수식어가 중심어 앞으로 오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접속사로 변했다고 보았다.

- 8) 楊榮祥(2008), 蔡英杰(2019), 楊萌萌(2018) 참조.
 9) 傅書靈(2010)은 名而動구문에서 명사성 성분이 판단문의 서술어가 될 때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에서 시작되어 고유명사, 사물명사, 대명사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蔡英杰(2019)은 名而動구문은 심층구조상 두 개의 진술성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되었고 표층구조로 투사될 때 주술(主謂)구조, 연동(連謂)구조, 부사(狀中)구조로 나뉜다고 보았다.
 10) 본문에 제시된 예문은 출처를 명시한 것 외에는 方有國(2002), 蔡英杰(2019)에서 인용하였다.

우가 많다. 명사는 대개 인명이나 신분, 직위 혹은 친족 관계 등을 나타내고 동사는 이들이 일으키는 행위나 사태를 가리킨다.¹¹⁾ 하지만 시간이나 장소, 사물, 숫자, 도구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출현하기도 하고 동사 뒤 목적어 성분이 앞으로 도치되기도 하여 주술 관계보다는 화제와 진술의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¹²⁾ 화제는 서술어가 진술하는 대상으로 한정적 성분이거나 대화 쌍방이 알고 있는 총칭적인 실체인 구정보일 경우가 많다.¹³⁾

기존에 접속사, 부사, 어기조사 등으로 품사 분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화제 뒤에 오는 而가 대비, 전환, 강조, 초점 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화제를 강조하는 초점 기능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초점은 화자가 강조하는 부분으로 대개 신정보를 가리킨다. 때문에 구정보를 나타내는 화제와 신정보를 가리키는 초점이 합치되는 것은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하지만 화제가 문장 밖의 배경 성분과는 대비되는 경우는 초점이 될 수 있다.¹⁴⁾ 이를 대개 화제초점이나 대비화제로 불렀다.¹⁵⁾ 楊榮祥(2008), 蔡英杰(2019)은 이를 대조초점으로 명명하였다.

11) 傅書靈(2010)에 따르면 聖人, 君子, 賢者, 士, 君, 臣, 大夫, 民, 父, 小人과 같은 신분이나 직위, 친족 등을 가리키는 명사나 堯, 文王, 周公, 孔子, 文公, 桓公, 管仲, 子産, 晏子, 許由같은 인물 및 璧, 玉, 財, 車, 舟, 土地, 金과 같은 사물, 我, 吾, 余, 予, 汝 등의 대명사가 자주 출현한다.

12) 楊萌萌(2018) 참조.

13) 찰스 N. 리·샌드라 A. 톰슨(1996) 참조.

14) 徐烈炯·劉丹青(2003)은 초점을 문장 안의 배경 성분에 비해 부각(prominent)되는지, 문장 밖 혹은 대화 쌍방이 공유하는 지식과 대비(contrastive)되는 지 여부에 따라 자연초점, 대조초점, 화제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초점은 [+부각]과 [-대비]의 특성을 가지며 중국어는 주로 문미에 위치한다. 대비초점은 [+부각]과 [+대비]의 특성을 가지며 문장 안에 다른 성분보다 부각되고 배경 지식과도 대비된다. 화제초점은 [-부각]과 [+대비]의 특성을 가져 문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성분이 아니고 반드시 진술 성분이 뒤따른다.

15) 사례(2019)는 徐烈炯·劉丹青(2003)이 제시한 화제초점은 실상 초점이 아니라 대비화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대비화제는 화제와 대조 의미의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는 효력은 없지만 대조 관계를 갖는 다른 잠재적 화제들에 의해 강조된다.

- (3) 相鼠有皮, 人而無儀, 人而無儀, 不死何爲. (詩經·鄘風·相鼠)
 쥐도 보면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면서 체통이 없다. 사람인데도 체통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무엇하리?
- (4) 且先君而有知也, 毋寧夫人, 而焉用老臣. (左傳·襄公二十九年)
 또한 선군이 이것을 알았더라도 차라리 부인을 꾸짖을지언정 어찌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楊榮祥(2008)은 (3)에서 사람이 쥐와 대비되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조초점으로 보았다. 앞서 (1)도 자산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조초점이 된다고 보았다. 蔡英杰(2019)은 (4)는 而앞의 돌아가신 선대 임금이 어떤 행위가 한다는 것이 내재적으로 대비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맥 밖에서 대비되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而앞의 명사성 성분은 문맥 안밖에 대비되는 대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척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아래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척도 초점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名而動구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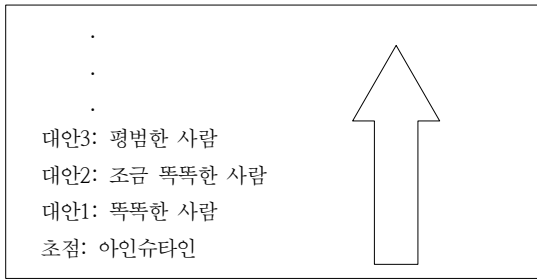
2. 척도 초점과 양보

이순욱(2017:28)에 따르면 한국어 결합형 연결어미 ‘-도’는 첨가 초점사로 대안 집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척도상의 끝값(extreme value)을 내포한다.

- (5) 가. 아인슈타인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나. 아인슈타인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다. 아인슈타인 외의 사람 중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할 사람이 있다.
 라. 척도 함축: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5가)는 초점사가 제외된 (5나)와 대안 집합이 존재하는 (5다)로 풀어쓸

수 있는데 (5라)와 같이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생성되는 이유는 척도 함축 때문으로 보았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면 가장 낮은 순위인 끝값에 해당되며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대부분 사람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척도 함축이 맨 아래 끝값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의미가 생기며 이로 인해 ‘-도’는 총망라성과 척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5가) 예문이 가지는 척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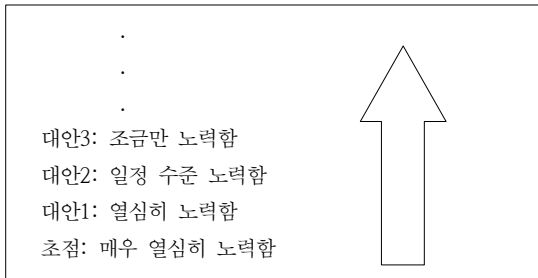
그는 ‘-도’와 같은 첨가 초점사는 범언어적으로 조건적 양보를 표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았다. 또 양보를 기대에 대한 부정으로 정의하고 사실적 양보와 조건적 양보로 구분하였다.¹⁶⁾ 사실적 양보는 양보절이 제시하는 사태가 이미 실현된 것이고 조건적 양보는 사태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중립적이다. 한국어 ‘-은 데도’, ‘-어도’, ‘-라도’와 같이 ‘-도’와 결합된 연결어미는 실현된 사건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사태에서도 쓰이는 조건적 양보로 보았다.

16) 그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기대는 <A이면 B이다>와 같은 조건 형식으로 표상된다. 이는 A가 B의 충분조건이고 B는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의미는 A일 때 B가 아닐 수 없음을 나타내고 B가 A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오직 B일 때만 A가 된다고 풀어 쓸 수 있다.

그는 영어 ‘even’ 역시 척도상의 끝값이 내포되어 있는 첨가 초점사로 인용하였다.

- (6) Even if I try very hard, I won't manage. (köning, & Auwera 1988:147)
 (비록 내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나는 해내지 못할 것이다.)

(6)에서 ‘even’의 초점인 ‘매우 열심히 노력함’은 주절이 나타내는 사태인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태로 만약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이라는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even’의 초점인 ‘매우 열심히 노력함’은 가장 순위가 낮게 되며 그 결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even’의 초점이 척도상의 끝값이 되며 다른 대안 집합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해내지 못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다른 모든 사태들을 총망라한다고 본다. 그는 (6)의 척도 함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선회(2010) 역시 ‘even’은 if가 이끄는 절을 수식할 때 극단적 초점을 가리키는 척도 초점사의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록 ~일지라도’와 같은 양보의 의미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또 ‘even’은 화자가 여러 대안에서 상대적인 순

위 매김을 반영하여 가장 맨 끝을 정하기 때문에 명제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평가가 투영된 주관화 현상(subjectification)으로 보았다.

3. 척도 초점사 而

名而動구문의 而 역시 척도의 끝값을 강조하는 첨가 초점사의 역할을 한다. 이때 而앞의 명사성 성분은 총망라성과 척도성을 갖는다. 이는 화자의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 척도의 끝값이 정해지는 주관화 현상이다.

(7) (我有子弟, 子產誨之, 我有田疇 子產殖之), 子產而死, 誰其嗣之?

(左傳·襄公三十年)

(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산이 가르쳤고 전답이 있는데 자산이 불렀다.)
자산마저 죽는다면 누가 그를 잇겠는가?

(8) (然則管仲, 知禮乎? 曰邦君, 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 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論語·八佾)

(그런즉 관중은 예를 압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임금이 塞門을 세우니 관씨 역시 塞門을 세우고, 임금이 反坫를 두었는데 관씨도 또한 두었다.”) 관씨조차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느냐?

자산이라는 인물은 정나라의 토지와 세제, 병역 제도를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끌었다. (7)에서 자산은 정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재상으로 척도의 끝값이 되고 화자는 그런 자산이 죽게 되면 그 일을 이어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8)에서 관중은 당시 제나라에서 칭송받는 재상이었지만 공자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신하로서 임금에 버금가는 예를 누린 관중이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모르겠느냐고 반문한다. 자산과 관중은 화자에게 가장 훌륭한 재상과 가장 예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척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에 해당되는 끝값이 된다. 이때 뒤에 誰, 孰이 출현하여 자산과 관중에 비교되는 불특정 대상을 총망라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몇몇 대상만을 비교 대조하여 강조하는 대조 초점어로만

보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한국어로 번역될 때 ‘-조차(도)’, ‘-마저(도)’와 같이 척도 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⁷⁾ 이런 척도의 끝값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 정해지며 진술의 마지막 부분인 단락의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두 예문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건 혹은 실제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적 양보에 속한다.

而앞에는 친족과 관련된 명사도 자주 출현한다. 친족은 혈연으로 맺어져 친밀함이라는 측면에서 척도의 끝값이 된다.

- (9) 子產曰：“兄弟而及此，吾從天所與。”(左傳·襄公三十年)

자산이 말했다. “형제조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는 하늘이 함께하는 자를 따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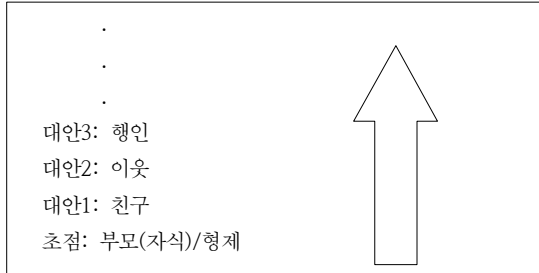
- (10) 文侯謂堵師贊曰：“樂羊以我故而食其子之肉。” 答曰：“其子而食之，且誰不食？(韓非子·說林上)

위나라 문후가 도사찬에게 “악양이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니 도사찬이 “자기 자식까지도 먹어 치우니, 누군들 먹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9)는 정나라 두 귀족 가문인 사씨와 양씨 집안의 백유와 자식 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자산의 평가 및 태도가 드러난다. 형제기간이라는 극도로 친밀한 사이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자산의 기대에 어긋난다. (10)에서 위나라의 장군인 악양이 중산을 공격하자 중산왕은 악양의 아들을 삶아서 그에게 보냈다. 악양이 자식을 먹는 행위는 친밀함이라는 척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다. 傅書靈(2010)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개인감정이나 가치에 반하는 사태를 나타낸다는 견해와도 상통한다. 두 구문은 모두 이미 실현된 사태로 화자의 기대에 부정되는 양보 의미를 갖는다.

17) 박진호(2015)는 한국어 보조사 ‘-도’ 외에 ‘-조차’, ‘-까지’, ‘-마저’라는 보조사 역시 앞에 놓인 요소가 척도상의 마지막 항을 나타내며 가장 일어나지 않을 기를 바라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았다.

(9~10)을 토대로 친밀함이라는 척도의 끝값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而앞에 신분이나 직위가 관련된 명사가 나타날 때도 그에 걸맞지 않는 행위 혹은 속성으로 인해 화자의 기대에 위배되면 반전이나 대비의 어기가 강화된다. 특히 신분제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나 덕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11) 匹夫而有天下者, 德必若舜禹. (孟子·萬章上)
필부이면서 천하를 소유하는 자는 덕이 반드시 순와 우와 같을 것이다.
- (12) 君子而不仁者, 有矣夫? (論語·憲問)
군자이면서 인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 (13) 且君而逃臣, 若社稷何? (左傳·宣公十二年)
또한 임금조차 신하를 피해 달아나면 사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에서 필부는 유교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천하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낮다. 오직 순과 우 같은 덕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12)에서 공자는 군자의 덕목 중에서 인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 군자가 인하지 못하면 군자로서의 존립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았다. (13)은 초나라 장왕이 정나라를 치고 돌아가는 길에 진나라가 정나라를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책사인 오삼(伍參)이 간언하는 말로 사직을 책임져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임금이 타국의 신하를 피해 달아나면 사직을 보존할 가

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아래 예문 역시 특정 직위를 가진 자가 직분과 동떨어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화자의 기대에 위배된다.

(14) 無禮無義, 人役也. 人役而恥爲役, 由猶弓人而恥爲弓, 矢人而恥爲矢也.

(孟子·公孫丑上)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사람에게 부림을 당한다.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치 활 만드는 궁인이면서 활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화살 만드는 사람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15) 陷君於敗, 敗而不死, 又使失刑, 非人臣也. 臣而不臣, 行將焉入?

(左傳·僖公十五年)

임금을 패배에 빠트리고 패배하고서도 죽지 않고 도망가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신하가 아니다. 신하이면서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면 장차 어디로 도망가겠는가?

(14)에서 弓人과 矢人是 문장 내부에서 서로 대조되는 대상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궁인이 활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본분에 맞는 일임에도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극적으로 대비된다. (15)역시 신하이면서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자의 비판이나 반감 어기가 드러난다.

而앞에는 시간명사도 올 수 있다. 시간은 그 자체에 이미 척도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一과 같이 최소량을 나타내면 척도의 끝값이 강조된다.¹⁸⁾

18) 袁毓林(2006)은 현대 중국어의 連字句역시 反預期를 표현하는 주관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連膽大的劉卯都膽怯起來와 같이 連+NP+都/也+VP 구문에서 NP가 가리키는 대상은 VP가 가리키는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척도 함축상의 가장 최저점(lowest point)에 해당된다. 여기서 全稱性和 反預期的 의미가 추론된다. 이런 가능과 불가능은 화자나 청자 혹은 일반적인 사회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이런 점은 본고에서의 名而動구문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16) 矯曰：“不殺二子，憂必及君。”公曰：“一朝而屍三廂，予不忍益也。”

(左傳·宣公十七年)

교가 “이 두 자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임금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니, 여공이 말하길 “하루아침에 세 명의 경을 죽였으니 나는 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17) 子之持戟之士，一日而三失伍，則去之否乎。(孟子·公孫丑下)

그대의 창을 든 군사들이 하루에 세 번이나 대오를 이탈하면 버리겠습니까?

(16)에서 一朝는 실제 하루아침일 수도 있고 매우 짧은 시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 명의 경을 죽이는 것은 화자가 보기에 일어나기 매우 힘든 사태이다. (17)역시 화자는 一日이라는 시간에 대오를 세 번이나 이탈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모두 而앞에 최소량을 나타내는 一과 결합된 시간 명사가 오고 뒤에 많은 수를 의미하는 三과 결합된 동사가 나타나면서 서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특정 시간 단위는 화자가 설정한 맥락적인 끝값에 해당되며 그 시간 안에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강조나 반전, 대비 어기가 두드러진다.

Ⅲ. 주관성과 감정이입

1. 名而動구문의 주관화, 주관성 및 감정이입

名而動구문은 화자의 사태에 대한 평가 혹은 태도가 드러나는 주관화(subjectfication)의 산물이다. 주관화는 언어 형태의 의미가 변할 때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하는 것으로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차 더 주관적인 의미를 갖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

한다.¹⁹⁾ 이런 주관화는 언어 형태의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 문법 화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통시적 시각에서 관심을 두었지만 공식적 분포에서도 주관화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주관화는 언어 형태의 주관성(subjectivity)과도 연결된다.²⁰⁾ 주관성은 대화 중에 화자의 자아가 포함되는 표현성분으로 대화 중에 화자의 입장이나 태도와 감정 등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²¹⁾ 而역시 화자의 평가 어기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주관성에는 강약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而앞의 명사성 성분의 속성과 관련 있다. 앞에 인물이나 직위, 신분 등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오면 한정적이거나 총칭적 대상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 어기가 강화된다. 반면 아래와 같이 사물 명사로 구성되는 경우 그 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²²⁾

(18) 曹人凶懼，爲其所得者，棺而出之。(左傳·僖公二十八年)

조나라 사람들은 조상의 시체를 파 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잡은
진나라 군인의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으로 내보냈다.

(19) 古之民，未知爲宮室時，就陵阜而居，穴而處。(墨子·辭過)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지을 줄 몰랐을 때는 높은 언덕에 가서 거하고
구멍을 파서 살았다.

19) Traugott(1993/1998)은 while이 상대적으로 특정 시간(~동안)에 대한 언급에서 나아가 사건을 기술할 때 동시성(반면에)의 중요성에 대한 화자 평가의 표현 즉 명제들 간의 대조에 대한 평가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동하였다.

20) 윤병달(1993)은 주관성은 화자의존, 표현적, 감정적, 추상적, 일반적, 불확정적, 선택과 해석이 다양함과 같은 개념적 특징을 가지는 비해 객관성은 화자에서 독립적, 지시적, 개별적, 확정적, 선택과 해석이 제한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21) 沈家煊(2001) 참고.

22) 아래 예문(18~21)은 蔡英杰(2019)에서 인용한 것으로 而앞의 명사가 대조 초점으로 강조되는 경우 외에 (18~19)는 연동구조는 두 서술어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而앞의 명사는 동사로 活用된 것으로 보았다. (20~21)은 부사구조로 而앞 명사가 주로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고 보았다.

(18)의 棺과 (19)의 穴은 구체적인 사물로 현실 세계에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여 화자의 감정이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따라서 화자가 관심을 두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때 而是 단순히 도구나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 표지에 가깝다.

아래 예문에서는 시간명사와 장소명사가 출현한다.

(20) 故宋公, 陳侯, 蔡人, 衛人伐鄭, 圍其東門, 五日而還. (左傳·隱公四年)
 송공, 진후, 채나라 사람, 위나라 사람이 정나라를 치고자 그 동문을 에워싸고 오일만에 돌아왔다.

(21) 彭氏之子半道而問曰: 君將何之. (墨子·貴意)
 팽씨의 아들이 도중에 물었다. 당신께서는 어디를 가시려는지요?

(20~21)의 五日과 半道역시 문장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배경으로서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한다. 하지만 일부 시간명사는 맥락에서 척도성을 갖는 경우 강조어기가 드러난다.

(22) 文公伐原, 令以三日之糧. 三日而原不降, 公令疎軍而去之.
 (國語·晉語四)

문공이 원을 벌하고 삼일의 양식을 배분하였다. 삼일이 지나도 원이 항복하지 않아 군사를 내어서 그를 쫓았다.

(23) 子產曰, “政如農功, 日夜思之, 思其始而成其終. 朝夕而行之. 行無越思. 如農之有畔. 其過鮮矣.” (左傳·襄公二十五年)

자산이 말했다. 정치는 농사일과 같아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 처음을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그것을 행하고 행동이 생각을 넘어서는 안된다. 농지에 밭두렁이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드물다.

(22)는 앞에서 이미 삼일의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 척도의 끝값으로 작용한다. 이 시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기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강조어기가 엇보인다. (23)은 何樂士(1999)는 앞의 日夜와는 달리 朝夕이라는

시간명사 뒤에 하나의 음절 而를 추가함으로써 낭독할 때 어기가 강화되는 느낌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둘 다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오는 경우보다는 주관적인 감정 표현이 적어 보인다.

요약하자면 名而動구문의 주관화 혹은 주관성은 앞에 출현하는 명사의 유정성과 관계가 깊다. 언어유형론에서는 유정성 등급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1·2인칭 대체사>3인칭 대체사>고유명사>사람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사람이 아닌 유정보통명사>무정보통명사²³⁾

유정성 등급이 높은 명사는 대체로 한정성을 가지며 행위자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1·2인칭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심리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 3인칭은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에 등장하는 특정 대상으로 역시 심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고유명사나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는 인칭 대명사보다는 화자와 심리적으로 멀고 무정명사보다는 가깝다. 앞서 예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인 자산과 관중보다 아래 3인칭 지시사가 포함된 명사가 화자와 심리적으로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24)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 執其手曰 “亡之, 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斯疾也.” (論語·雍也)

공자의 제자 염백우가 질병에 걸렸다. 공자가 문병하면서 들창 너머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운명이로구나! 이 자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자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24)는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염백우가 문둥병에 걸리자 문병 가서 위로하는 내용이다. 자신의 제자는 병에 가장 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문둥병 역시 걸리지 말아야 할 병으로 공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이처럼

23) 金立鑫(2011/2015:282) 참조.

화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은 화자의 감정이입(移情, speaker's empathy)이 커질 수밖에 없고 주관성 정도도 커진다.

즉 名而動구문에서 而앞 명사성 성분의 유정성에 따라 주관성 정도가 달라진다.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인명이나 가족, 친지를 가리키는 명사는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보다는 주관성 정도가 높다. 이외에 시간 관련 명사 역시 일정 정도 주관성을 갖는다. 시간은 대부분 유정명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사태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드러날 여지가 있다.²⁴⁾ 반면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무정명사의 경우 현실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감정 개입이 가장 적다.

2. 名之動구문과의 주관성 비교

주관성이 약한 名而動구문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는 名之動구문과 자주 비교되었다. 두 구문은 구조적으로 명사와 동사성 성분 사이에 而와 之가 출현한다. 둘 다 앞에 출현하는 명사인 주어를 재지시하는 중복대명사에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⁵⁾ 方有國(2002)는 而는 2인칭대명사에서 발전되어 강조를 나타내다가 가설, 전환, 승접의 문맥에서 쓰이는 접속사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아래 예문처럼 실제 의미가 없는 경우는 之와 호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25) 家臣而君圖, 有人矣哉. (左傳·哀公十二年)

가신이면서도 군주를 도모하는 자도 있는지요?

(26) 大夫爲政猶以衆克, 況明君而善用其衆乎. (左傳·成公二年)

대부인 자중이 집정했을 때 많은 병력으로 이겼는데 하물며 어진 임

24) 楊榮祥(2008)은 而앞에 시간명사는 경과나 도달의 의미가 내재되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술성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이는 시간명사가 행위와 연결되어 다른 사물명사보다 더 행위자 중심적임을 보여준다.

25) 董蓮池(1990), 方有國(2002) 참조.

금인데도 그 병력을 잘 다룸에 있어서라?

하지만 (25)에서 가신은 군주를 보좌해야 함에도 도리어 그를 피하여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화자의 반감이 여전히 드러난다. 만약 이 문장에 之를 삽입한다면 가신 중에서 군주를 피하려는 자가 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할 것이다. (26)역시 앞 절에서 대부의 행위와 뒷 절에서 임금의 행위가 점층적으로 대비되면서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

아래 역시 之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7) 其謂寡君而固有外心. (左傳·昭公三年)

그들은 우리 임금께서 다른 마음이 품었다라고 말했다.

(28) 吾驚怖其言, 猶河漢而無極也. (莊子·逍遙遊)

나는 그 말에 놀랐는데 마치 은하수가 끝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27)역시 寡君이 강조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는 화자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으로 세간의 생각이 자신과 다름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반면 (28)은 앞에 은하수라는 보통명사가 출현하여 객관적인 사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어기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다만 은하수가 넓고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다고 보아 점층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名之動구문에도 “小國之仰大國也, 如百穀之仰膏雨焉.”(소국이 대국을 바라보는 것이 곡식이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左傳·襄公十九年)와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다. 而 앞의 명사성 성분이 무생명사로 주관성이 약하면 둘 사이의 의미 차이가 적어 보인다.

楊萌萌(2019)은 상고 중국어의 주어와 서술어 의미관계를 갖는 主之謂와 主而謂구문 즉 본고의 名之動구문과 名而動구문은 공통적으로 NPFVP 형식을 가지며 진술대상인 NP와 진술성분인 VP사이에 각기 다른 기능 범주인 F(functional category)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主之謂구문은 비정형절(nonfinite clause)로 之는 중심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主而謂구문은

정형절(finite clause)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evaluative) 어기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문(27~28)에서 보듯 名而動구문역시 문장 내부의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고 또 주관적인 평가 어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名而動구문의 주관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앞의 명사성 성분에 대한 화자의 감정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名而動구문이 갖는 화용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많은 경우 名而動구문은 명사와 동사성 성분은 화제와 진술의 관계를 갖고 而는 화제 뒤에서 척도성을 갖는 초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한국어 ‘~도’, ‘~까지’, ‘~조차’, ‘~마저’나 영어 ‘even’과 if절이 결합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때 而앞에 명사성 성분은 총망라성을 갖고 척도의 끝값으로 작용한다. 또 비실현적 사태와 이미 실현된 사태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기대의 부정이라는 양보 의미를 갖는다. 而앞에는 고유명사 혹은 사람의 신분이나 직위 혹은 가족과 관련된 명사가 자주 온다. 이들의 속성이나 행위가 화자가 기대하는 바와 배치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반전이나 대조, 강조어기가 파생된다. 시간명사도 최소량과 같이 척도의 끝값이 내포되는 경우 강조된다.

名而動구문은 어떤 사태에 화자의 평가나 태도, 감정이 반영되어있다. 이런 주관화 현상은 언어 형태의 주관성과도 연결되며 주관성 정도는 而 앞의 명사성 성분의 속성과 관련이 깊다. 유정성 등급이 높을수록 즉 사람과 관련된 명사일 경우 무정명사보다 화자의 감정이입이 크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보다는 화자의 평가나 판단의 어기가 강해진다. 종종 어떤 名而動구문은 名之動구문과 호응된다고 여겼다. 이는 而앞에 무정명사가 출현하여 화자의 감정이입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즉 名而動구문의 주관성 정도는 명사성 성분의 유정성 및 화자의 감정이입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참고문헌 >

- 박진호,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제73집, 2015.
- 사례, <중국어의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에 대한 재고-용어 사용 양상을 출발점으로>, 《중국언어연구》 제85집, 2019.
- 안기섭·김은희, <고대한어 ‘而’의 連詞性에 대한 의문>, 《중국인문과학》 제51집, 2012.
- 예선희, <척도초점사 even의 문법화에 대하여-주관화, 상호주관화, 서법화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4-4호, 2010.
- 윤병달, <영어에 있어서 의미의 주관성과 통사적 표면형>, 《언어연구》 제9집, 1993.
- 이순옥, 《한국어 양보의 표현 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7.
- 蔡英杰, <古漢語“名而動”結構的再認識>, 《古漢語研究》 第3期, 2019.
- 陳寶勳, <先秦連詞“而”語法語義考察>, 《古漢語研究》 第1期, 1994.
- 董蓮池, <假設分句主謂之間“而”字新探>, 《古漢語研究》 第2期, 1990.
- 方有國, <古漢語主謂間“而”字研究>, 《西南師範大學學報》 第4期, 2002.
- 傅書靈, <關於古漢語“名而動”的一點思考>, 《中國語文》 第5期, 2010.
- 何樂土, <左傳的連詞“而”>, 《左傳虛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99.
- 金立鑫, 《什麼是語言類型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11.
- 최재영, 안연진, 김동은(역), 《언어유형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藍英, <從少數民族語言看“而”的虛化演變>, 《古漢語研究》 第1期, 1990.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北京: 中華書局, 1994/1998.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898/2008.
- 梅廣, 《上古漢語語法綱要》,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8.
- 沈家煊,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外國教學與研究》 第4期, 2001.

- 沈家煊、許立群, 〈從“流水句”的性質看先秦“名而動”結構〉, 《語言教學與研究》 第6期, 2016.
- 宋洪民, 〈也談“名而動”結構〉, 《中國語文》 第2期, 2009.
- 薛鳳生, 〈試論連詞“而”的語義與語法功能〉, 《語言研究》 第1期, 1991.
- 徐烈炯·劉丹青, 《話題的結構與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 中華書局, 1981.
- 楊萌萌, 〈上古漢語“主之謂”及“主而謂”結構的句法〉, 《IACL 발표논문집》, 2018.
- 楊榮祥, 〈論“名而動”結構的來源及其語法性質〉, 《中國語文》 第3期, 2008.
- 袁毓林, 〈論“連”字句的主觀化表達功能—兼析幾種相關的“反預期”和“解-反預期”格式〉, 《中國語學》 第253號, 2006. 《漢語主觀性與主觀化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1.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1993. 《문법화》, 김은일·박기성·채영희(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9.
- Li & Thompso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표준중국어문법》, 박정구·박중환·백은희·오문의·최영하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pragmatic meaning of the structure of ‘noun-er(而)-verb’. In this structure, nouns and verbs have the relationship of topic and comment, in which er(而) performs the role of scalar focus particle behind the topic.

Nouns in front of the er(而) acts as the extreme value of scalar,

which is comprehensive. The structure of ‘noun-er(Ⅲ)-verb’ can appear in both realistic and non-realistic situations, and has the meaning of concession with the negation of expectation.

In other words, since the attributes of the noun component are not consistent with what the speaker expects, twist, contrast, and emphasis are derived. The structure of ‘noun-er(Ⅲ)-verb’ is the product of subjectification, which reflects the speaker’s evaluation or emotion in a certain situation. Subjectification is connected to the subjectivity in the form of language, while subjectivity is also related to the attribute of the noun component in front of er(Ⅲ).

The higher the level of sentience in the noun in front of conjunction (Ⅲ) gets, the higher speaker’s empathy is, compared to the inanimate noun, when human-related animate noun appears. This makes speaker’s evaluation or judgment more distinct than the delivery of objective facts.

Key Words : 척도 초점사(scalar focus particle), 양보(concession), 주관화(subjectification), 주관성(subjectivity), 감정이입 (speaker’s empathy).

